강희업 대광위원장, “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, 지역균형발전 견인”

- 19일 사상~하단, 하단~녹산 도시철도 현장 찾아 적기 개통·안전사고 예방 강조 -

□ **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**은 3월 19일(화) 오후 **부산 사상~하단 도시철도 현장**을 찾았다.

○ **강 위원장**은 **’26년 개통**을 목표로 **차질 없는 사업 관리**를 **강조**하고, 해당 노선과 연결되는 **하단~녹산선 현안을 청취하며 관계자를 격려**하였다.

□ **강 위원장은**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**부산 사상~하단 및 하단~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**에 대한 **추진 상황**을 보고받은 뒤, **부산 새벽시장 인근 본선 구간 현장** 등을 **차례**로 **점검**하였다.

○ “부산 도시철도 **사상~하단선은 도심지**를 **관통**하는 노선으로 **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**과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공간 확보에도 **많은 어려움**이 있다고 알고 있다”면서, **철저한 안전사고 예방**을 **당부**하였다.

○ 또한, “**부산 사상~하단, 하단~녹산** 도시철도는 부산 **시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서비스 제공**은 물론 올해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**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교통접근성** 개선 등 **지역균형발전** 견인에 큰 역할을 할 것”이라면서, “본 사업이 **적기에 개통**될 수 있도록 **최선을** 다해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
□ **강 위원장**은 대광위에서도 빠르고 편리한 **도시철도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적극적 행정지원**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.

2024. 3. 19.

국토교통부 대변인